“사회 위해 목숨 바친 이들 극락왕생 하소서”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5. 생명나눔 천도재 현장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서 천도재
생명나눔 영가 등 450위 봉안돼
한국전쟁 시 산화된 육군사관생도
코로나19 희생자 위패 함께 모셔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남양주 불암사에서 봉행한 ‘불암사 · 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1회 생명나눔 천도재’.

장기기증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한 이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이 남양주 불암사 마당에서 펼쳐졌다.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는 물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불암사에서 ‘불암사·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1회 생명나눔 천도재’를 봉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부터 매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자리이타를 실천하며 생을 마치고 떠나간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다.

2017년부터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한국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사관생도들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봉행하고 있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는 1950년 6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불암산 인근 지역에서 유격작전을 펼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적과 맞서 싸우다 산화했다. 불암산 일대의 동굴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던 유격대는 불암사 주지 스님과 석천암 주지 스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격대는 총 4차례 공격 작전을 시도했고 북으로 끌려가는 주민 100여 명을 구출하는 등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 이들은 육사 생도 1기 10명, 2기 3명, 성명 미상 3명, 육군 7사단 7명, 중사 1명, 성명 미상 6명 등 20여 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기 직전 안타깝게 전사했다. 역사상 유례없이 계급과 군번 없는 사관생도 신분으로 참전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7사단 용사들, 그리고 유격대에 도움을 준 불암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천도재에는 매년 육사 생도들도 동참해 선배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올해도 2명의 생도가 참석, 호국정신을 기렸다.


천도재는 영평사 정림 스님을 증명법사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천도재 동참자들이 합장한 채 불암사 경내를 돌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또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한 위패도 함께 모시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올해 천도재에는 호국영령과 장기기증자, 의인(義人) 등 450여 명의 영가가 모셔졌다. 천도재는 영평사 정림 스님을 증명법사로 시련과 대령, 관욕의식, 법문, 상단불공, 관음시식 등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회심곡에 따라 동참자들은 제단 앞에 나아가 헌화 헌다하고 향을 사른 후 차례로 절을 올렸다. 불교전통의식과 바라춤에 이어 경기도무형문화재 살풀이 이수자인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이 극락무 시연으로 경내를 장엄한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동참자들은 합장한 채 마당을 돌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간절한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날 ‘생명나눔’을 실제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천도재를 이어 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면 스님은 2000년 1월 8일, 뇌사자의 간을 기증 받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생명나눔’의 산증인이다. 스님은 “1998~1999년 2년 사이, 간경화로 16번이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결국엔 2개월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기적으로 22살 청년의 간을 이식 받고 25년째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청년을 ‘선재’라고 호칭하고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떠난 영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선재 영가에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생명나눔을 실천하려 한다”고 말해 동참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경내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부스를 마련, 천도재 동참자 외에도 등산객 등에게 자비나눔의 의미를 알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일면 스님의 생명나눔 법문

“몸과 마음 바로 써야 성불합니다”

주리반특가, 잡일 소임 정성껏
놀림에도 고된 수행 후 깨달음
진심 실천해야 존경받는 어른 돼



부처님 재세 시, 주리반특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후 경전 한 구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 문밖에서 울고 있는 그에게 부처님은 ‘불진제구(佛塵除垢)’라는 구절을 주며 수행을 재개하게 합니다.

‘먼지를 쓸어 내고 때를 닦아 낸다’는 뜻의 이 짧은 구절조차 주리반특가는 온전하게 외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됐지만 주리반특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하찮게 보이는 마당 쓰는 ‘잡일’을 담당했지만 주리반특가는 일심으로, 꾀부리지 않고, 열성을 다해 정성껏 소임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쓸고 닦는 것에 담긴 청정비구로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보 비구’로 놀림 받던 그였지만 빗질 한 번, 미소 짓기라는 단순노동을 반복하는 ‘마당쓸기 3년’의 고된 수행을 통해 훌륭한 제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깨달음은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 평범한 일상 속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고 궁극적으로 진리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훌륭하게 해내는 일, 그래서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 부처님이 일러주는 니르바나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주리반특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무거운 입’도 한몫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업을 짓지 않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잘 써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정리=임은호 기자

* 이 법문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열린 ‘제31회 생명나눔 천도재’에서 설한 법문 중 일부입니다.

마하무용단, 신규단원 위촉

6월 6일, 12명에 위촉장 전달
일면 스님 “생명나눔의 얼굴”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이 신규단원 위촉식을 갖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마하무용단은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 대웅전에서 ‘신규단원 위촉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여러분은 마하무용단원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얼굴”이라며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정현숙 단장은 2017년 창단 당시를 떠올리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우리가 무용을 만나 소중한 인연으로 애정이 넘치는 사이가 됐다”면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생명나눔과 더불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신규단원은 “더 많은 나눔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마하무용단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달 진행하고 있는 환자치료비 전달에도 마음을 보탰다.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다.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9일~14일 2차 : 모연중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